
이준석 후보님. 전화왔습니다

명태균 게이트와 이준석 후보와의 상관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.

오늘 한 언론은 이 후보와 명 씨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도했습니다. 보도에 의하면, 명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정인을 공천하라는 말을 이 후보에게 전달했고 이 후보는 이를 확인했습니다.

또한 명 씨의 여론조사 결과를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으며, 명 씨의 다른 여론조사가 언론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내용까지 보도됐습니다.

이 후보가 명 씨와 긴밀하게 연관됐다는 정황증거가 점점 확실해지고 있는 것입니다.

지난 15일에는 명 씨가 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비공표 여론조사 과정에서 2위 이 후보를 ‘1위와 초박빙’으로 조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윤 전 대통령을 1등 후보로 만들 때 썼던 가짜 응답자 샘플 수법이 동일하게 사용됐다는 내용입니다.

여론조사 비용 의혹도 함께 불거졌습니다. 이 후보와 친밀한 관계로 추정되는 배 모씨가 명 씨의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600만원을 송금했다고 하며, 이 후보와 배 모씨의 다정한 투샷 사진도 함께 공개됐습니다.

이제는 이 후보님이 응답하실 때입니다. 해당 언론이 답변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이 후보는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. 당당하다면 반론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. 대체 무엇이 두려우신 겁니까.

“기득권에 맞서는 이야기를 하면 깔보는 세상 속에서 살아왔다”는 이 후보님께 신속대응단이 대신 전해드립니다. 이준석 후보님. 전화왔습니다. 애타게 찾고 있다고 합니다.

2025년 5월 25일

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
단장 강득구, 부단장 정준호·박관천